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진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발행처 : 대한미주총회 총신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5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편집국장 : 조신권

이번 주 단기선교 기다리는 그들에게 몽골 · 스리랑카 · 방글라데시로

그주에 세 팀이 떠난다. 13일부터 27일까지는 몽골 팀(단장 조인재 장로, 지도 김희수 목사 외 18명), 13일부터 22일까지는 스리랑카팀(단장 김광남 장로, 지도 이슬수 목사 외 12명), 그리고 16일부터 28일까지는 방글라데시팀(지도 차병준 목사 외 5명)이 각각 선교지로 떠난다.

장사 선교사로 섬기기를 희망하는 중학생 두 명이 어머니와 함께 자비량으로 참가하기도 하는 몽골팀은 우리 교회 국내외국인선교부에서 출석하는 근로자들을 기성을 심방하면서 그 가정들을 거점으로 하여 복음을 전할 계획이며, 의료사역과 캠퍼스 전도사역도 병행할 예정이다. 스리랑카팀의 사역은 현재 우리 교회 평신도교단 훈련원(LMTC) 과정을 밟고 있는 선교사 지망생들의 선교적 적응훈련의 성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들 중 두 명의 자매는 현지에서 한달간 채류하면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인도할 계획이다. 현지 사역에서의 동역은 본 교회 외선부 출신 현지인들이 감당할 예정이다. 그리고 방글라데시팀은 지난 해에 현지를 방문한 선교팀을 통해 복음을 접했던 현지인들을 다시 만나 그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배우는 일을 하면서 캠퍼스 전도사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번에 떠나는 모든 선교대원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현지인들과 단기선교팀과의 영적 교감이 깊어질 뿐 아니라 현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서 그들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교정전도회 춘천소년원 여름성경학교

8월 9-13일

자원봉사자 모집 · 기도 부탁

교정전도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춘천소년원 여름성경학교가 금년에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춘천소년원 생활관에서 진행된다. 금번 수련회는 약 2백여명의 소년원 수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제교의와 분반성경공부, 부흥회와 기도회, 그리고 신앙강조 등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함으로 세례식에 이르도록 하는 집중수련회로 진행된다.

적지 않은 인원을 단기기간에 양육하는 이 일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정전도회에서는 대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물론,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자원하는 이들은 동참하여 실길 수 있다. 행사준비팀은 이미 지난 4일(주일) 찬양예배 후에 이를 위한 기도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기도회는 7월 18일과 8월 1일 주일 찬양에

배 후에도 실시될 예정이다. 장소는 교정전도회 사무실이며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권하고 있다. 한편, 교정전도회는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의 많은 기도의 후원을 당부하고 있다.

교사들과 원생들이 집회를 위해 반 마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 감사(사광진 목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잘 증거되게 하소서, / 교사들과 찬양팀이 기도와 합심으로 무장하여 성령충만한 가운데 겸손히 행케 하소서, / 모든 프로그램 진행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각 담당자들을 사용하시며 주 안에서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 교사들에게 적절한 거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 성경학교 후에도 교사의 사랑과 헌신이 계속되게 하소서.

계속되는 계절학교

유 · 초등부, 청년1 · 2부, 장년1부, 신혼가정부
사랑부, 에바다부, 영어교육부
시온 · 실로암찬양대

여름 계절학교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금주에 진행되는 각 부서의 수련회는 16일(금)과 17일(토)에 집중되어 있다.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하는 부서는 유 · 초등부(강사 : 김영기 전도사, 송원식 전도사, 주재 :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청년1부(강사 : 이슬함 목사, 주재 :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2부(강사 : 전형준 목사, 박형용 목사, 주재 : 거룩한 나 그리스도 사는 청년), 장년1부(강사 : 박형용 목사, 김재성 목사, 주재 :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와 사랑부(강사 : 김동식 목사, 주재 :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에바다부(강사 : 박인기 장도사, 주재 :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시온(강사 : 조문환 목사, 주재 : 빛 가운데 행하자) 및 실로암찬양대(강사 : 조문환 목사, 주재 : 찬지를 지으신 여호와) 등이다. 한편 신혼가정부와 영어교육부는 17일 하루만 수련회를 진행한다.

이웃사랑 저소득 주민 지원

봉사위원회는 역삼1동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결연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34명의 저소득보조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일정액의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교역자 인사 교육전도사 5명 청빙

교회는 지난 2개월간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인터넷과정을 밟은 5명의 교육전도사 후보자들을 정식으로 교육전도사로 임명키로 하였다. 이들은 김성경 전도사(중등2부), 신자경 전도사(중등3부), 이정철 전도사(고등부), 이상열 전도사(사랑부) 그리고 유성열 전도사(에바다부) 등이다.

교구별 특별 전도행사 4교구와 8교구

4교구는 7월 10일(토) 만나홀에서 교구식구들의 새신자 초청집회를 가졌다. 금번 집회는 각 구역에서부터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야 진교회적인 전도도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3개월 전부터 준비하여 실시된 것이다. 4교구 식구들은 불신가족들과 친척, 그리고 이웃들을 대상으로 100여명의 태산자들을 품고 꾸준한 기도에 왔으며, 금번 집회를 통해서 이들을 초청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러한 형태의 전도행사는 앞으로 각 교구에서 꾸준한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8교구는 이미 지난 6월 19일(토) 해당동 제개발 아파트 입주대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행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때 만난 태산자 110명을 대상으로 꾸준한 <주간중회> 및 양육권자를 발송하고 있다. 그리고 8월 14일에 할렐루야찬양대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음악회(후원 : 전도위원회)에 이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군전도회

'99 ROTC 장교후보생 전도집회 7월 18일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한국 기독교인연합회와 군선교연합회의 공동 주관으로 실시되는 ROTC 장교후보생 예배 및 세례식이 6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 9주 동안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진행되는 중, 본교의 군전도회는 이 중 7월 18일 전도집회(강사 : 전형준 목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날 수세자는 90여명이며 본교회에서는 군전도회와 할렐루야찬양대가 참가하여 섬기게 된다.

99년도 하반기 장학금 신청 다음 주일부터 8월 8일까지

전반기에 선발된 중 · 고 · 대 · 대학원생 장학생들 중 후반기에도 학업을 계속하는 자 및 전액장학생 후보자들, 그리고 전반기 선발 누락자 및 선발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99 하반기 장학금 신청이 다음 주일(18일)부터 8월 8일까지 계속된다. 대상자들은 청원서 및 학업계획서, 전반기 성적증명서, 추천서, 보호자 통장사본, 등록금 영수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교육국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하반기 장학생 선발은 9월 당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수여식은 9월 12일 찬양예배시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총현남성중창단 제3회 연주회 7월 24일 나사렛홀

최고 수준의 음악이던 찬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총현남성중창단(지도 : 김경진 집사, 단원 : 이계숙 박초현 김봉관 장상원 김동진 전이배 풍인국 김재형 함종민 김만철)의 제3회 연주회가 오는 7월 24일(토) 오후 7시 나사렛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 연주될 곡은 알렐루야, 찬양 찬양 및 13곡이며 벨레어성경창단이 찬조출연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격려와 동참을 기대한다.



김 창 인 목사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사야 44:9-23)

“여호와께서 아굽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I.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이란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며 섬기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 3:5).

우상을 섬기는 일은 첫째로, 헛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니 그들의 중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9절). 둘째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 가증한 물건들을 만들고서 ...”(19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입고 음을 쉬며 사는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과는 등을 지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사람만도 못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복을 달라니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1)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거만하여집니다.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효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시라” 그러면 “흠”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둘째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완악해집니다. 완악이란 선을 결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욱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 줄 알고도 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불온이고 악을 선이라고 우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완악해지고 맙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활은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완악해지는 데 이르기 쉽습니다.

셋째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이리직어집니다. “그는 흙, 백향목, 베이목, 혹은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흙 삼입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삼고 비로 차례대로 하니 나무 무엇이 나무는 사람이 회복을 삼는 것이어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듬게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맥을 굶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를 하느니라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듬게 하여 이리기를 하라 하였더니 내가 불을 보았으나 하느님이 회복을 삼는 것이 아니라 신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것을 하라고 세움을 보내셨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선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목적이 합당하도록 순종하

하라 하는도다”(14-17절)

넷째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잔인하여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하여 사람에게서 재물을 삼으니 너무나 잔인합니다.

다섯째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더러워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반드시 음란죄가 따라붙습니다.

(2) 우상을 섬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석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10-11절)

첫째로, 영육이 헛수고를 하는 손해를 당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불행하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인 탐심을 쫓는 것도 무서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 욕심을 품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불의한 돈, 불의한 권세, 불의한 명예, 불의한 사람들에게 욕심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됩니다.

넷째로, 단식일이 됩니다. 만물의 단식일입니다. 사람이 물을 앞에 놓고 절을 하면 그 물이 기가 막히 단식을 할 것입니다. 성도와 성령님의 단식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이 단식하는 말을 듣고 고치지 못하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 영원히 단식을 하게 됩니다.

2.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다”(23절)

첫째로, 우리는 창조함을 받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이나 먹고 잡나지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것을 하라고 세움을 보내셨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선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목적이 합당하도록 순종하

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가면 병이 낫겠지, 사업이 잘될것지, 아들이 복을 받게지” 물론 그럴 수 있으나 이것이 앞서면 하나님 앞에서 이기주의의 신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구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으니 나의 행한 일을 돌아보면 생각이 어리석었고 행동이 더러웠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은 한 마디도 못하고 늘 남을 헐뜯는 말만 하여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멸망의 용덩이에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희생시켜서 우리를 건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의 위치에서 구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천국 백성입니다.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순종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모두 던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2)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로, 죄와 허물을 없애 주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백백한 구름의 사도 집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자집같이 다 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22절)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 주시므로 죄가 없었기에 저와 함께 근심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면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둘째로,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를 범하므로 잃었던 것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각복을 15장의 탕자는 장차 물러 가는 재산을 아버지에게 청구하여 그것을 챙겨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

다. 얼마동안은 총정망청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흥년까지 만나 마침내 거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부자들의 아들로서 재산과 세도가 있었고 자유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이제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재산을 탕진하고 흥년까지 만나게 되니 남의 집 재지를 치는 꼴으로 전락하였습니

다. 그때에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중나가서 돌아오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 후에 반지를 끼워 주면서 아들의 명분을 다시 주었습니다. 자유와 재산과 명예가 회복되었습니

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왕으로 바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죄 때문에 잃었던 것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십니다. 명예도 권세도 재산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공을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가 잔치를 베풀고 이웃을 청하였습니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신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해 주셨을까?’를 생각하여 섬기기도 또한 ‘죄 가운데 지옥에 빠졌던 나를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어 건지셨을까?’를 생각하고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는 대로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까지 복을 내려 주시고, 나로 인하여 만물이 기뻐하고 천군 천사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할 때에 하나님님이 웃으시니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웃게 됩니다.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ㄴ



김 성 록 목사

오직 천국시민으로 살자

(빌립보서 1:27-3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

오직 한 가지

‘오직’이라는 말에는 실로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밖의 다른 모든 가능성성을 배제합니다. 오직 한 가지에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명하실 때 바로 이 말을 강조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오직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사모했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와 오늘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한가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이 거룩한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열망이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본분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오늘 본문은 강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27절). ‘오직 ... 생활하라!’는 말씀에서 생활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시민으로,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민권에 관해서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오직 너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라!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하늘의 집을 바라보라

사실 빌립보인들은 로마제국의 식민지 거민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직접 살지 않더라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현재는 자신들을 시민권을 부여한 나라, 곧 천국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족장으로서는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자신을 그 나라에 우거하는 자로 여겼습니다(창23:4).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할 때에도 자신들은 단지 외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혼돈됨이 없는 왕국인 하늘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다른 나라에 이민하여 살고 있는 셈이며, 이곳에서의 우리들의 신분은 단지 일시적인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집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일심으로 서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 각 개인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는 각 개인을 위한 편지가

으로 서게 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병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병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28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 곧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단은 강력하고 교활하여 속이는 지혜가 탁월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사탄의 책략들을 멸할 수 있습니다. 죄의 힘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부수아졌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일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용기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용기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29절).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로 여겨진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요 경이로운 축복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책임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교회를 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늘로서 내리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시민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심으로 힘써야만 합니다. ‘연합’이
필요합니다. 연합은 곧 힘이며 이 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되게 하시는 줄로 묶으십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일심으로 서게 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인내의 은총을 위하여

인내의 은총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시민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다해야 합니다. 사단과 그 무리들이 이 하나됨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부끄러워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적하는 반대자들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싸움을 빌립보 교회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30절). 우리 역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오직’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순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여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 아멘!

하늘에 쌓는 보물

이 땅에서 우리들이 지내는 나날은 잠시동안입니다. 우리는 이 타지에서 살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 곧 하나님의 집, 천국에 쌓아놓아야 합니다. 그 나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요 18:3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요 14:1-4).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오직 천국의 시민으로 생활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서서 힘쓰고 함께 건네내야 하겠습니다. 아멘. **H**

아니라, 그것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설교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특별히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직 하늘의 시민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심으로 힘써야만 합니다. ‘연합’이 필요합니다. 연합은 곧 힘이며 이 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되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권수의 세력을 부술 수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성도들의 하나되는 힘을 무력화시킴으로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따라서 성도들의 연합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되게 하시는 줄로 묶으십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일

부터 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가이사의 법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현실적인 처지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가 충만함을 뿐 아니라 오래도록 인내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의 죄를 향하여 그가 치켜든 깃발을 보십시오. 오직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그의 삶을 보십시오. 이 위대한 성도의 힘과 거룩한 용기는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무리와 함께 행진하십니다. 그의 무한한 신 능력은 한 영으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위어진 우리들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꺼이 감당하는 고난

세계 선교

LMTC 평신도선교
훈련을 마치고

평신도선교훈련생중

의대에 다니는 후배가 늘 공부에 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늘 출퇴근 한으로 다녔습니다. 그 후배를 보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 이렇게 애를 쓰고 준비하는데,

선교사는 생명을 다루는 영혼의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하는 저의 게으른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LMTC 평신도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마음과 감성 그리고 절정만으로는 부족한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흐름, 문화 인류학적인 접근, 비교 종교학,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선교, 언어훈련 등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여겨졌던 세상의 구석구석, 역사의 흐름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이만큼 넓어졌습니다. 지난 2학기 동안 세계를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아래서 수련의 과정을 부지런함으로 충현된 눈으로 배우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진실함으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 주신 많은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 사랑

“구역장님들의 수고가 없다면 ...”

— 이웃 사랑으로 사랑 충만, 은혜 충만 —

5교구 4지역 일원 도시2구역에 사는 차원대 집사님(79세)과 지천자 사신님(81세)께 방문했습니다. 지 권사님을 따라가며 많이 편찮으셔서 따님댁을 가셨다. 이들 구역 식구들이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이웃 사랑 이야기를 차원대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다.

-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권사(차 집사님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는 주로 기도를 해요. 하루에 한 스무 시간은 기도로 살아요. 어떤 때는 권사가 기도에 미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권사가 기도를 하는 동안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니다.

- 젊은 구역 식구들과 서로 어떤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 가세요?

오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놀라워요. 신앙이 어찌 그토록 좋은지 그 사람들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들이 주는 사랑을 먹고 삽니다.

- 구역 식구들이 주는 구체적인 사랑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구역식구들은 늘 가장 감사한 일을 우리를 교회로 태워가 주고 태워오는 일이죠. 아침에 교회에 갈 적에는 오순영 구역장님 부부가 주소를 하시고 오후에 집에 돌아올 때는 오순영 집사님이 에

를 쓰지요. 조 집사님은 시간이 맞지 않아 일부터 기다렸다가 우리를 태워서 돌아옵니다. 지 권사는 다리가 많이 아파서 혼자서는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구역장님들의 수고가 없다면 아마 교회 출석도 못할 거예요. 그 고마움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요. 정말 좋은 신앙인들입니다.

-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는 불편이 없으신지요?

그럼요. 소망부에서는 우리를 아주 친근하게 대해 줍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쏟아 주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교회와 구역에 대해 아주 만족합니다.

오순영, 조옥련 두 집사님은 차 집사님과 지 권사님을 교회에 모시고 다니는 일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오고 가는 길에 하는 일이기 때문이란단다. 그래서 극구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 오히려 권사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은혜가 더 높다고 감사해 했다. 그러자 차 집사님은 이들의 고마움을 부끄러워할 수 없어 사람들에게 자랑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셨다. 일원 도시구역 식구들이 나누는 이런저런 이웃 사랑의 향기가 아름답다. (원영희 기자)

몽골단기선교를 떠나며

전 병 길(청년부, 몽골단기선교 단원)

6월 초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몽골단기선교팀은 한 달 동안 바쁜 일정을 지내왔다. 시간적으로도 부족함과 모든 준비의 미흡이 팀원들을 긴장시킨다. 현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이 나오지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촉박한 학기말 프로젝트를 뒤로 제쳐두고 모든 시간을 할애하였고, 단장님, 목사님, 다님 팀원들 또한 자신들의 스케줄을 비워두었다. 막막하기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주님께서 지혜와 방법들을 예비해 주심을 느낀다. 낯선 곳에서의 적응과 언어훈련은 교회에서 통역과 언어교사인 단사님과 수반씨가 많은 시간을 내어 우리를 도와 주셨다. 늘 모두가 모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준비일정에 모두들 내 일일이 함께하는 은혜스러움을 보았다.

우리는 우선 현재 충현교회 국내외국인신교부에 출석하고 있는 몽골인들의 집들을 방문하고자 한다. 이것은 작년에도 이미 한 바 있고,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들에게 현재 한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의 안부와 소식을 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여 부흥집회를 열고, 찬양과 말씀선보, 예수영화 상영, 마미과 인형극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미리 준비한 몽골어전도지와 사명서를 가지고 캠퍼스 전도를 할 것이며 의료사역도 있을 예정이다.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내내 나에게겐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왔다. 공동체사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로간의 갈등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그에 대해 내린 결론은 기도였다. 정말 많은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고 새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 것이 몇주간의 고백이다. 대학 청년부 선교 기도모임(세풍이)에서 인사를 나누던 중 출근길에 바로 교회로 달려온 형에게 힘들겠다는 위로의 말에 대해 그 형의 대답이, 힘드니까 힘을 얻으러 오는 것이라고 하던 것이 나를 도전케 만났다. 주여! 몽골의 영혼을 우리에게 나누소서. 할렐루야!

기도제목

1. 단기선교기간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2. 현지상황과 기후, 식사, 건강 등으로 인해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3. 팀원 모두의 심령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4. 몽골의 죽어있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셔서 복음의 열매 맺게 하소서.
5. 단기선교를 통하여 단원들의 심령에 선교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장 · 단기선교사가 배출되게 하소서.

친 딸처럼, 친어머니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이웃 사랑, 무로 금식소를 운영하고 거리의 걸인들에게 다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 같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런데 여기 쪼잔한 즐겁게 이웃 사랑을 하는 집사님을 만났다. 노성영 집사님(사진)은 매일 새벽 혼자 사시는 권사님을 어머니처럼 모시며 딸뻘이 되어 드린다.



- 어떻게 권사님을 알게 되셨나요?

어머니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새벽기도를 갔어요. 알자리에 앉으신 권사님이 꼭 어머니처럼 느껴져서 그냥 그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와 어머니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그 후로 어머니께서는 새벽마다 저를 기다리시고 기도를 해 주세요. 어머니와의 만남으로 믿음의 삶이 성장했어요. 어쩌다 몸이 불편해서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벽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 어떻게 권사님과 교제하시나요?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는 제가 새벽에 어머니를 모시러 가요. 보통 돼의 어머니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셔서 교회

에서 기다리세요.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저를 친딸같이 대해 주세요.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면 어머니의 지나간 이야기를 물어드리고, 한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물어드리면 참 기뻐하세요. 저도 저의 고인스런 문제를 말하기도 하죠. 저는 노인분들을 좋아해요.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교회 주변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식사대접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와의 만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요.

우리 주위에는 혼자 사시는 권사님들이 많아요. 이렇게 딸뻘을 해주며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 아닐까? (이수경 기자)



호선에게 전하겠어요

김은유(유년부)

여름방학이 되면 교회에서는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곳에서 성경말씀을 배우고 찬송도 합니다. 또 저녁이 되면 교회 친구들과 잠을 잡니다. 여름성학교는 즐겁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호선이에게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호선이는 나 짝꿍이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무척을 믿어서 다른 일이 있습니다. 호선이가 저에게 같은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참 수요일예배도 잊지 말고 다녀야겠습니다. 친구들이 수요일예배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예배시간에는 말씀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네 동생들은 놀다가도 예배시간에는 서둘러 돌아오고 빨리 가자고 부르거든요. 물론 끝나고 나면 운동도 하고 가끔씩 보르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라면이랑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거든요. 아! 방학이 빨리왔으면 좋겠어요. 방학동안 교회에 가서 놀게요. 오늘도 저녁먹고 동생들과 운동을 하려고요. 교회 마당에서 놀면 시원하고 맨지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 물어봐요 형! 십자가는 왜 꼭대기에 있어? 왜 빨간색이야?

피아노대회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김은경(초등부)

나는 이번 여름방학에 성경 캠프를 많이 갈 예정이야. 또 성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읽고 가령예배도 매일매일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피아노대회가 있는데 꼭 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지...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번 방학엔 성경을 좀더 많이 읽겠어요

김삼우(소년부)

나는 이번 여름방학을 바쁘게 보낼 것 같다. 우선 7월 26-27일에 걸쳐 열리는 여름성경학교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또한 29-31일까지 어린이 사랑선교회에서도 주최하는 캠프에도 갔다올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방학에는 성경을 좀더 많이 읽어야겠다. 1달여의 방학 속에 4복음서를 읽고 싶다. 이번 방학은 어느때보다 뜻깊은 방학이 될 것 같다.

이번 여름방학은 이렇게 보내보자

변혜숙
(유년부 교사)

사랑하는 유식이 유나야! 사람들은 벌써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여름 계획을 짜고 또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단다. 그래서 엄마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여름방학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지.

학원공부도 좋고 여행가는 것도 좋지만 이번 여름엔 좀더 신앙생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 적었거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TV 보고, 컴퓨터 등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열심히 하면서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물론 유식이 유나가 아침마다 OT도 잘하고 또 가정예배드릴 때 읽는 성경도 잘 읽어 사도행전까지 나가고 있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불과 20-30분 정도밖에 안되는거야. 너무도 부끄럽지, 나머지 그 많은 시간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구나.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단다. 그래서 올해 여름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여름방학엔 '감사하는 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자.

하루 생활 중에 감사할 일들을 5가지 이상 찾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거야. 감사가 없으면 욕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되거든.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하고, 늘 지켜 주시니 감사하고, 입마, 입바 주셨으니 감사하고, 학교 잘 다니고 건강하니 감사하고,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이번 여름엔 믿음의 크게 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것이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행동으로 옮기며 생활하자.

사랑하는 엄마야.

나날이 변화가는 너를 바라보며

강순옥
(집사, 청년부 교사)

오늘도 너는 바빠 웃을 이것저것 고르더니 가장 편한 웃으로 골라입고 학교로 가느구나.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기뻐할 때가 있거늘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지났구나. 재수시절 대학교에 들어가면 꼭 열심히 대학 부에 나가겠다고 결심했는데...

"엄마, 돈 좀 주세요." 차비만 타가지고 가는 너의 뒷모습을 본다. 오늘은 토요일. 가장 바쁜 날이라고 하면서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도 나보고 대신 좀 갖다 달라고 부탁했지.

학교방송반이다. 또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도 그렇게 바빠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밤 10시에 녹조가 되어 들어오는 너. 요즘 대학교 1학년이 되어가 방송부 수습요원이다 미팅하러 MT7과 לנו를 세 없구나. 밤에 엄마가 가정예배드리자고 모이러면 TV를 켜놓고 "엄마, 이것만 보고"라며 미루는 너. "엄마 젊게 기도해. 진화를 데가 있어"라고 독촉하는 너. 이렇게 세상적인 삶 속에 나날이 빠져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기뻐하는 너를 보며 엄마는 기도한다.

6·25 고대형 기도모임을 떠올린다. 신실한 많은 젊은이들이 신실한 하루의 삶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었다. 설교를 위하여 이 땅의 통일과 북한 동포를 위하여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땅의 타락한 문화를 생각하며 울부짖으며 호느끼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모임 가운데서 나는 너를 생각한다. 이곳에서 너도 같이 부르짖으며 같이 손을 들고 찬양했으면, 신실한 젊은이를 틈 속에서 살아 개선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무릎의 물결 타오르게 하소서..." 이 여류,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오지와 낙도도 뛰어넘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살아 개선 하나님께의 선리와 계획과 위대하심을 체험했으면, 세상 때 묻지 않은 젊은이를 틈에서 주님의 천국일꾼으로 성장했으면...

어느날 내가 MT를 갔다는 날이었어. "5주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제 대학부에 들어가야겠어요."라며 코멘을 들고 말하던 너. 그때 엄마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옛날 같은 코멘을 들고 교회 갈 생각을 했는지.

이제는 예배시간도 잘 지키고 늦지 않으려고 애쓰는 너를 본다. 나날이 조금씩 변화가는 너를 보면서 엄마는 확신한다. 언젠가는 충런의 신실한 젊은이들과 같이 부르짖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섬길만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엄마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지. 기도를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바로 나와 너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믿음의 형제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명: 강성경
나이: 4개월 12일(99년 2월 20일생)
병명: 심장판막 및 심부전
엄마: 방민자 성도(15교구, 신림6구역)

심장판막 및 심부전증으로 입원하여 심장판막 수술을 받고 지난 월요일(7월5일) 퇴원 후

구토와 고열, 보혈으로 재입원

현재 신촌 세브란스병원 심혈관센터 특별관찰실에서 진료 중에 있음.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5개월도 채 되지 못한 어린 생명이 병과 힘든 싸움을 계속 하고 있음.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완치함을 받을 수 있도록
2.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3. 어린 일을 통하여 온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 100년을 생각한다

'99 교육세미나를 마치고서

이인 상(장로, 교육세미나 진행위원장)

교회교육에 참여하면서 늘 아쉬움으로 남는 것 중 하나는 '우리들의 교회교육에는 일선에서 맘을 흘리는 교사의 고민과 아픔이 과연 잘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시적, 하향적 교육제도에 익숙한 우리들의 환경에서 교회학교 일선 교사들의 의견들을 다각적으로 수렴한 금번 세미나는 과연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슬한 어려움을, 바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어야 했던 조곤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是我们의 뒤로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는 세미나에서 정돈된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았다. 모든 진행과정과 참여자들의 수고, 모든 교사들의 헌신적인 동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심어린 감사를 올려드린다.

1999년도에 새로 조직된 교육연구소는 2월 월례회에서 효과적인 교육연구소의 업무를 위해서 현장의 소리

를 수렴하고, 세미나 방향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꾸준히 모여 계획과 준비를 진행시켰다. 세미나의 주제는 '교회학교 100년을 생각한다'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대다보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리고 세미나의 형식은 주제강의와 6개분과별(교과과정, 교사, 교재, 조직, 재정, 행사) 분립토의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물론 교회에서 처음 시도되는 행사인데다가 세미나 성격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보이지 않는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모든 일은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총련교회의 교회학교는 교회실업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10년, 20년, 30년 이상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 대부분이 교회학교 교육에 관해서 어떤 분야든지 성실히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또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세미나 기간 내내 너무나 잘 나타났다. 우리했던 부정적인 접근들은 거의 없었다. 시종일관 성실하고 진지한 토론이 계속되었고, 알찬 대안 및 제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크게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넘쳐나면서 모든 종류의 이야기들이 수용되었고 받아들여졌다.

금번 세미나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동안 진행될 제한된 토론으로 인해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나누어오던 이야기들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수렴되기에는 충분한 시간과 내용이었다. 물론, 금번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이 정당성과 적실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이거나 개인적인 견해, 현실적인 내용도 있고,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밀려서 하는 것들도 있었다. 이런 것을 잘 살펴 금번에 나온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일은 교육연구소와 교육위원회, 그리고 각 유관 위원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교사, 교육에 열심을 내는 교사들 덕분에 우리들은 내용이나 해결책 이상의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바뀔 것이든 아니든 모든 내용들이 지속적인 각 분과별 의상 등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모두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야 할 질문이 있다. 과연 교회에서 교회교육은 우선순위로 따질 때 몇번째나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교회교육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라는 의지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들의 수고의 땅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남겨진 과제들이 아름답게 열매맺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6개분과별 토론크결과 주요사항들

교과과정분과

1. 각 부서별 연구위원을 두자. 교회내에 교회교육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2. '천국일꾼'에 대한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통일된 '천국일꾼'에 대한 정의를 가지자.
3.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을 성정 발달 단계에 따라 접근하려는 의지들은 꾸준히 개발하고, 각 성장단계별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학년단 통합형식에 따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분과

1. 교육전담 교역자, 특수부서를 위한 전문교사, 각 부서별 전문화된 교사제도가 필요하다.
2. 교사양성부서는 교사들에게 실재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과파강을 고쳐야 한다.
3. 교회교육 및 교사교육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적성에 따른 교과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5. 전교회학교를 통합학교로 보는 관점에서 교회학교 조직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교사 수급문제, 교사양성, 자질향상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 교육자료실을 구비하여 각 부서에서 사용한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자료들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위해 자료관리교사를 따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교재분과와 공동 의견).

교재분과

1. 일단은 총회에서 발간되지 않는 부서들(영아부, 예배부, 사관부, 영아교육부 등)의 교재들부터 자체개발해서 교재자체개발의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것이 좋다.
2. 교재개발을 위해 기존에 시도되었던 작업의 자료들이 별로 없다. 향후 교재개발이 되더라도, 꾸준한 자료의 보강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대다수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회공과는 교역자들이 필요에 따라 내용을 보강, 조정해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은 총회교육부에 꾸준히 건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하자.
3. 교육에 매우 필요한 기자재면서, 또한 구입할 수 있고, 구입되어야 할 기자재들은 구매를 미룰 필요가 없이 신속하게 구입되어야 한다.

조직분과

1. 교육관련 각 부서장의 책임과 권한이 명문화해 한다.
2. 장년부의 경우 연령별 편제보다는 성정공부반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3. 교육위원회를 확대하여 교역자 및 교육실무자(부장 등)도 참여하여 실재적인 기획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 기능 중심적 조직이 필요하다.
5. 교사임기제 및 전담교역자제도, 교회학교 전담 장로제도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재정분과

1. 현행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행사에 따른 예산의 5%부터 시작하여 미리 확정되어야 명단에 대한 준비가 자연스럽다.
2. 교회학교 각 부서의 행사들과 그에 따른 예산분배가 매년 결정되는 교육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되도록 해

야 하겠다.

3. 교육예산을 현실화하여 교회 총예산의 10%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회계정산제도를 간소화하고, 각 부서별 총 예산 범위 안에서의 자율적 예산 사용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사분과

1. 모든 행사는 교육목표를 이루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2. 획일적인 행사보다는 각 부서별 자율성에 따른 창조적 효과적인 행사들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각 부서에 행사담당교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교회학교별 표준행사지침서가 마련되면 유익할 것이다.
4. 부가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여 공동의 행사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모든 행사는 행사보다도 철저한 사전준비 아래서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새가족과 함께

주님의 주권적 섭리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명희 성도

이제 몇 달 후면 새해를 맞이 할 새가족 신명희 성도는 작년 초 생활의 어려움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새가족회회를 찾았다. 그렇게 새가족 기도회를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체험들을 허락하시면서 작년 10월에 새가족부에 등록을 하였다.

신명희 성도는 어렸을 때 집안이 불교 집안에서 절에 부모님을 따라가기도 했으나 미신 스템을 다니며 가족 속으로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왔다. 그런데 교회 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 선포 하나님께를 찾아 나오지 못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생활하는 모든 상황들이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극복할 때까지 이르게 하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은 남편과 조동부부 원년부가 다니는 아들과 딸



△ 새가족부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 오른쪽이 신명희 성도.

이 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난 후 자녀들을 전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남편을 전도하는 중인데 서서히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 믿고 있지 않은 시부모님들과 친정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이다.

신명희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난 후 그 전에 생활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이제는 없어졌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쁨 따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도 새가족회회를 계속 참석하고 금요찬양회에도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는 찬양이 너무 좋아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싶고 대학 때 미술을 전공하면서 교회 여러 곳에 붙어 있는 장식들이나 헌수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로 봉사하길 원한다고 한다. (백주영 기자)

지체들 소식

지체들 소식

영아부

꼭꼭 자라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아기들

아기들이 꼭꼭 자라 이제는 엄마, 아빠의 말과 선생님의 말을 알아듣고 표현을 하며 찬양과 율동으로 조그마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예배에 얹어 마을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 일년의 반을 보낸 후 아기들이 예수님을 닮아 가며 새롭게 변화되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와 선생님들은 기쁘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영아부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부흥하여 많은 아기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어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

지난 7월 4일을 맥추감사절로 지냈습니다. 밀과 보리, 수박, 참마, 마늘, 포도 등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한복을 곁에 입고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맛있는 과일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의 아들을 보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최선을 다해 우리 아기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이 너무 어렵고 무섭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친구들을 지켜 주세요. (임미순 통신원)

유년부

드디어 즐거운 여름성경학교!

유년부에서는 금년 여름성경학교는 뭔가 예년보다 신선하고도 은혜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까 두 달 전부터 고심 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유년부 리더들 울며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유익하고도 재미있으면서도 큰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할까 고민하느라 임기처 장로님을 위하여 77분의 선생님 머리 위에서 모락모락 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행사를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주일마다 특별 기도회로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었구요. 프로그램 말은 교사들은 늦은 시간까지 남아 열심히 구슬땀을 흘렸답니다. 아! 드디어 5일 앞으로 다가온 여름성경학교!

7월 16일(금) 오후 3시에 시작하여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마치고 한답니다. 올해는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또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거든요. 만약 부득이 참석 못하는 친구들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데요. (윤숙희 통신원)

초등부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을 닮자'

여름성경학교를 7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한답니다. 올해는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을 닮자'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웃지킴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사용되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장소 탐방', '예수님 닮기' 예시는 마지막 성찬식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 주는 세족식도 갖고 부흥회도 한답니다. 둘째날에는 아침부터 요한일서 성경을 초등부 학생 전원이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여 성경 공부, 성경 퀴즈와 독해활동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 학생들이 협동하여 그 그림으로 나타내는 시간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오늘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린이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정말 성경님이 함께 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미희 통신원)

중등부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수련회

7월 21일(수)-23일(금) 충현기도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라'는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기간에는 학부모님들도 함께 초청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7월 22일(목)에는 저녁집회 후에 전교사와 참관하신 학부모님들이 모여 학부모 초청 기도회 및 간담회를 갖습니다. 관심있는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송미경 통신원)

청년2부

풍성한 상반기 결산, 수련회로 하반기 준비

'사랑하고 섬기자'는 주제 아래 99년도를 시작한 청년2부는 목사님, 장로님, 교사들, 면목회가 연합하여 올해는 양적으로도 200명을 목표로 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청년2부를 만들기 보자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열심을 낸 결과 모임에는 회원들의 수가 약 7% 증가되었으며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영적 열매들도 맺었다. 7월 4일부터 26개반으로 조편성이 되어 새롭게 이뤄지고 지도자반에서 양육반은 조장들이 새로운 일꾼들로 청년2부를 섬기게 되었다. 상반기를 결산하며 많은 일들을 하였고 많은 열매들을 맺은 청년2부는 올 여름 선물을 사신한 부제를 교인들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청년2부를 새롭게 열었다. 교회에 이례적인 지원한 부채바람을 일으키면서 헌신하기를 시작한 청년2부는 여름수련회에도 30대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7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합동신학대학원(수원)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바형용 목사님과 정현종 목사님이다. 6월부터 기도로 준비한 여름수련회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청년2부에 참석 못하신 많은 회원들이 여름수련회에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친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것이 회원 모두의 바람이다. (백영자 통신원)

12교구

에스다전도회 하오 병원전도

전도하는 전도회하기 위해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어 장복 삼성병원 신관 2층 내과 병실에 환자전도반은 환자전도회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너무나도 부추김에 두렵고 떨렸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어섯 명의 전도대원을 선발하여 매주 화요일 오전에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병실을 방문하여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상심하며 절망하며 괴린한 그분들의 마음문을 여쭙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두 리음뿐이었으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진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고전 2:4)라는 말씀을 붙잡고 병실 앞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신 기도하고 병실을 담회하러 갔다.

먼저 침대에 앉아 있는 자나 누워 있으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라든 누구에게라도 접근하여 병원 원목실에서 나뉘준 전도봉투의 배지를 달고 "처음 뵈겠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충고회로 전도하러 왔습니다"라고 정중히 머리숙어 인사하고 밝은 미소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처음엔 뻔히 쳐다보며 냉담하지만 우리 주변의 함양 치료받고 승리한 믿음의 가족들의 간증을 전할 때 그분들도 귀가 솔깃하며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치료 인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삼십만 여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복음을 전

9교구

10월 31일을 '충력전도주일'로

마지막 주일인 10월 31일을 '충력전도주일'로 예정하고 각 기도회와 구역, 개인이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 같이 놓고 기도하며 대신자 갖기를 위하여 '대신자 명단 기록부'를 나누어 주었다. 대신자 카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대상자를 놓고 충분히 기도함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도와 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었다.

교구 목사님께서 '관계전도'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 나와 관계있는 사람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도와 주며 좋은 관계를 맺어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기도드린다. (유옥현 통신원)

충현복지관

우리두리 여름캠프 대상자 모집

충현복지관에서는 일반 중·고등학교생 청소년과 함께 하는 통합 프로그램인 우리두리 여름캠프에 참가할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훈련가능군 이상인 정신지체인 중·고등학교생 20명(선착순)

일시: 8월 31일(화) - 5일(목)

장소: 충북보건군 서당골

회비: 5만원

문의: 지역아동재활과(565-7564)

한 후 재유를 위해 두 손 잡고 함께 기도를 드렸다.

복음교사에게는 기독교의 복음을 한번 들어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며 구원은 예수밖에 없음을 전하였다. 간혹 말도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들의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젊은층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바쁜 삶 속에서 영혼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몸이 병들어 병상에서 복음을 듣고 회한 후 급진적 교회에 나가기도 한분들을 결코 약속했던 하나님의 씨(29세). 하나님께서 케시먼 그날 대가 지 제 일을 주여 고분소망케 하는 나그 해변뿐만 아니라 소망의 주님 붙잡고 투쟁하자고 두 손 잡고 기도할 때 두 눈에는 물이 흥건이 고 일인 김명주 씨(54세),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로 과민성 대장암 환자였던 정창원 씨(28세)는 마태복음 6:27, 11:20 말씀을 듣고 모든 걱정 근심을 예수께 맡기고 주님 영접하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자는 복음을 전할 때 "네" 하러 왔은 바로 처다보았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 교회와 청년부를 소개하면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 합당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경말씀을 발견하기도 했다.

강한 척 냉담한 척하지만 한없이 연약한 심령의 그분들에게 때를 얻든지 두 얻든지 한 사람의 영이라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는 화요일도 미소먼 얼굴로 병실에 찾아들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